



광양야경

광양매화마을

‘체류형 관광’ 다시 찾고 싶은 광양 만든다

광양시가 2026년을 맞아 ‘일상이 관광이 되는 도시, 다시 찾고 싶은 광양’ 실현을 목표로 관광도시 전환에 속도를 낸다.

20일 시에 따르면 산업·문화·자연 자원을 연계한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 관역별 특화 개발과 관광 인프라 고도화를 중심으로 관광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단순 방문 중심의 관광 구조에서 벗어나 머무르고 다시 찾는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전환을 꾀한다.

특히 구봉산 관광 연계시설·체험형 조형물 조성, 배알도 수변공원 캠핑 메카 조성, 광양읍 미디어아트 관광 명소화 등 주

요 관광사업을 조속히 완공해 권역을 잇는 광양형 관광벨트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관광 콘텐츠를 기준의 관람 중심에서 체험과 참여 중심으로 확장한다.

광양매화축제는 체험·야간·연계 콘텐츠를 강화해 경쟁력을 높이고, 삼화섬과 해비치로를 잇는 ‘달빛365’ 야간관광 사업을 통해 세계적 관광 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윤동주 테마 관광 인센티브 지원, 배알도 수변공원 모래마당 조성, 아이언아트시티 관광 브랜드 구축 등을 통해 관광

자원을 관역별로 정비하고, 광양만의 관광 서시를 하나의 브랜드로 집약해 나간다.

시, 구봉산 관광 연계시설·체험 조형물 등 조성

권역별 인프라·콘텐츠 연계…관광도시 자리매김

아울러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위해 광양 K-POP 페스티벌을 비롯한 대형 공연·이벤트 유치와 내·외국인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을 병행하고, 2026년 전남도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관광객 유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양 관광 미션투어, 광양 시티투어 운영, 힐링 수변길 조성, 배알도 수

변공원 캠핑마을 조성, 코리아돌레길 쉼터 및 걷기 프로그램 운영을 연계해 머무는 시간만큼 경험이 깊어지는 관광 구조를 강화한다.

시는 백운산·구봉산·섬진강으로 이어지는 관역별 특화 개발을 통해 관광 거점

을 입체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광양형 관광 허브를 조성한다.

백운산권은 도선국사 문화관광벨트, 산림박물관, 토종식물원, 광양읍 미디어아트 관광 명소화 사업 등을 연계해 역사·생태·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웰니스 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관광 안내 체계 정비와 문화관광 협회·관광안내소 운영, 관광지 환경 관리 등을 통해 관광 서비스 품질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대응해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관광 홍보마케팅도 강화한다. 관광객이 직접 미션을 수행하는 광양 관광 미션투어를 운영해 관광

경험이 공유·화산되는 구조를 만들고, 영향력 있는 콘텐츠 생산자를 활용한 제3기 G-관광마케터 운영을 통해 광양관광의 매력을 온라인·모바일 채널로 효과적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2026년 광양관광은 방문

지점에서 체류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두고 관광의 전 과정을 춤출히 설계했

다”며 “관역별 핵심 인프라와 차별화된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연계해 세계인이 주목

하는 글로벌 K-관광도시로 도약해 나가

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jin@gwangnam.co.kr

무안, 반도체 클러스터·대기업 유치 박차

김산 군수 청와대·국회 방문
군공항 유치 인센티브 건의
“국회 차원 모색 필요” 강조

무안군이 광주 군공항 이전 인센티브로 ‘반도체 클러스터·대기업 유치’를 청와대에 요청했다.

20일 무안군에 따르면 김산 군수는 최근 청와대와 국회를 방문해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정책적 지원 방안 및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산 군수는 청와대에서 김용범 정책 실장을 면담하고 광주 군공항 이전에 따른 지역 발전 방안의 하나로 ‘반도체 클러스터 대기업 유치’를 군공항 이전 인센티브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군수는 무안국제공항과 KTX 접근성, 가용 부지, 재생에너지 기반 인프라 등 지역 여건을 설명하며, 대기업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정책의 검토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주민 수용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국가 차원의 중장



김산 무안군수(왼쪽)는 최근 청와대와 국회를 방문해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정책적 지원과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기 산업 정책과 연계한 지원 방안에 대해

관련 부서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군수는 또 국회를 찾은 서삼석 국

회의원에게 광주 군공항 이전의 실질적

해법으로 대기업 유치를 통한 반도체 클

러스터 기업이 무안에 내려올 수 있는 관련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서 의원은 “지역의 현안 해결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의 연계 필요성은 공

나주,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결혼 초기 경제부담 완화

혼인신고 후 6개월 경과 후 1년 6개월 이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전남 아이톡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결혼축하금은 신청 후 다음달 15일에 지급된다.

나주시는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결혼축하금 지원을 통해 청년 세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에게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

업으로, 결혼을 계기로 나주에 정착한 청

년 세대가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

두 49세 이하인 청년부부로 신청일 직전

까지 전남도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 기간은

나주시는 결혼축하금 지원과 함께 청년 주거·일자리·복지 정책을 연계해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돋고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결혼은 개인의 삶은 물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선택이다”며 “청년부부가 나주에

서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생활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합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해남 서림공원 족욕장 ‘군민 힐링공간’

오전 9시 30분부터 운영…매주 일·월요일 휴장

해남군이 해남읍 서림공원에 조성한 족욕장이 군민들의 힐링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 까지, 수질관리와 청소 등을 위해 매주 일요일·월요일과 공휴일은 휴장한다.

또 개인이 편하게 족욕을 즐길 수 있도록 1인용 족욕통도 함께 비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에어펌프가 준비돼 있어서 수건이 없어도 금방 물기를 해결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편안하게 물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안전한 족욕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h239@gwangnam.co.kr



해남읍 서림공원에 조성된 족욕장이 군민들의 힐링공원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순천, 프리미엄 밀키트 상품화 추진

30일까지 모집 업체당 500만원 지원

순천시는 순천형 밀키트 제작 지원을 통해 소비자 기대에 부응하는 고품질 밀키트를 개발·보급하고, 지역 미식 브랜드 인식순천의 인지도를 확산하기 위해 순천형 밀키트 제작 지원 사업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밀키트 상품의 제작, 포장, 장비·자재·원자재 지원으로써, 순천의 대표 음식이 가정 간편식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돋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밀키트 개발 및 판매에 관심 있는 순천시 식품위생업소로 총 4개소를 선정해 업체당 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접수 마감 후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접수는 관광과 미식관광팀(순천시 중앙로 232, 삼단도서관 4층) 방문 또는 이메일(guswo5151@korea.kr)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홈페이지 공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형 밀키트 제작 지원을 통해 지역 먹거리의 상품 경쟁력을 높이고, 전국 어디서나 ‘미식순천’을 경험할 수 있는 대표 먹거리 상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천=박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여수 농수특산품, 15% 할인 판매

내달 18일까지 우체국쇼핑몰

고향의 정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선물로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시 브랜드관’은 우체국과 2020년부터 협업을 통해 우체국쇼핑몰 내 개설·운영 중인 여수 농수특산품 온라인 판매관으로 현재 43개 업체가 입점해 있다.

시는 앞으로도 입점 업체를 확대하고, 계절별·테마별 판촉홍보를 통해 브랜드 관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획전은 여수 농수 특산품의 경쟁력을 널리 알리고, 온라인 판로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청정 여수의 맛과 정성을 담은 특산품으로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